

마가복음에는 부활이야기가 없다. 요한복음에는 부활이야기가 20 장과 21 장 두 번에 걸쳐 나온다. 문맥상으로 20 장 30-31 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보이며, 21 장이 덧붙혀진 것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. 여기서 초점은 "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"(21:15). 이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!

A. 제자들 간의 힘겨루기

1. 마리아/여성들 vs. 소위 "열 두 제자들"

- 마지막까지 예수의 죽음을 지킴(마 27:61; 막 15:47; 눅 24:55-56)
-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감(마태 28 장; 마가 16 장; 누가 24 장; 요 20 장)
- 역시 끝까지 무덤 주위에서 예수를 찾음 (cf. 요 20:10)

2. 예수의 측근

-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(요 13:23; 19:26; 20:2; 21:7, 20)—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이르지만, 들어가지는 않음
- 베드로—무덤 안에 들어감
-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(요 11:16; 14:15; 20:24-28; 21:2)—예수 있을 때, 함께 있지 않았음

B.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(요 21:15)

1.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, 네가 어떻게 읽느냐? (눅 10:26)

- ἀγαπᾷς με πλεον τουτων; (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?)
- these=> 6 가지 경우의 수
 - 이들 남성, 이들 여성, 이것들(중성)
 - 위의 세 경우가 주어로 쓰일 때; 목적어로 쓰일 때

2. 우리들 입장—신학 다시하기

- 주어로 쓰일 때는 남들과의 비교.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?
- 목적어로 쓰일 때=> 내 이야기. 내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가? 예수를 다른 것/가치보다 더 높이는가? 귀하게 여기는가?

생각해 보기

1. 인생에서 내가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은?
2. 내가 예수를 통해 얻는 가치는?